

저자 조원영
(Authors)

출처 [역사와경계 40·41](#), 2001.12, 1-30(30 pages)
(Source) [History & the Boundaries 40·41](#), 2001.12, 1-30(30 pages)

발행처 [부산경남사학회](#)
(Publisher) Pusan-Kyungnam Historical Socie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461693>

APA Style 조원영 (2001). 신라 중대 신인종의 성립과 그 미술. 역사와경계, 40·41, 1-30

이용정보 삼성현역사문화관
(Accessed) 183.106.106.***
 2021/10/17 10:3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新羅 中代 神印宗의 成立과 그 美術

조 원 영*

目 次

- I. 머리말
- II. 神印宗의 성립과 성격
 - 1. 神印宗의 성립
 - 2. 神印宗의 성격
- III. 神印宗과 中代王權과의 관계
- IV. 神印宗 미술의 특징
- V. 맺음말

I. 머리말

新羅 中古期는 불교의 수용기로서 많은 불경의 전래와 학승들의 활동으로 다양한 성격을 띠게 되었던 시기였다. 이때 활동했던 승려 가운데 密敎的 성격이 뚜렷하였던 승려는 密本이었다. 그는 「藥師經」을 이용한 치병활동에 주력하면서 차츰 왕실과 일반 민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¹⁾ 이러한 신라의 밀교가 神印宗이라는 하나의 종파로서 성립하

* 밀양대학교 강사

1) 拙稿, 「新羅 中古期 佛敎의 密敎의 性格과 藥師經」 「釜大史學」 23, 1999.

게 된 것은 新羅 中代 文武王代의 승려 明朗의 활동에 의해서였다.

신라 밀교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는 신라 밀교의 대표적 승려인 明朗과 惠通, 惠日 등의 활동에 대한 연구,²⁾ 미술사적 연구성과와 기존사료의 해석을 통해 신인종이 華嚴宗과 함께 전제왕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종파였음을 부각시킨 연구,³⁾ 초기 밀교의 수용부터 해통 이후까지의 밀교사를 왕권과의 결탁과 함께 일반 민들에 대한 治病 활동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한 연구,⁴⁾ 밀교 자체의 사상적 측면을 설명한 연구⁵⁾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존 연구에서는 신라 중대에 성립된 신인종이 하나의 종파로서 성립되었는가, 만약 그러했다면 宗派佛敎로서의 성격에 가지고 있는가라는 신인종 자체의 성격에 대한 해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물론 종파불교에 대한 문제는 신인종뿐만 아니라 화엄종, 法相宗을 포함한 신라통일기 불교의 성격문제, 나아가서는 한국사의 시대구분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신인종의 성립이 곧 종파 성립을 설명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구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신라 중대 왕권 전제화과정에서 왕권과 신인종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결여되어 있으며, 신인종 성립과 그 전개를 증명할 수 있는 신인종 미술의 종합적 검토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료를 통해 신인종의 성립에 대하여 살펴보고, 당시 불교계에서의 신인종의 위치와 중대 왕권과의 관계, 그리고 신라 중대 전시기를 통한 신인종 세력의 추이도 파악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인종의 성격과 관련하여 신인종 미술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朴泰華, 「新羅時代의 密敎 傳來考」, 『趙明基博士 華甲記念 佛敎史學論叢』, 1965.

3) 文明大, 「新羅 神印宗의 研究 - 新羅密敎와 統一新羅社會 -」, 『震檀學報』 41, 1976.

4) 金在庚, 「新羅의 密敎 受容과 그 性格」, 『大邱史學』 14, 1978.

5) 高翊晉, 『韓國古代佛敎思想史』, 동국대 출판부, 1989.

II. 神印宗의 성립과 성격

1. 神印宗의 성립

신인종은 신라 문무왕대 당과의 전쟁을 거친 후 밀교 승려 명랑에 의해 성립되었다. 이 신인종의 성립과 개창자인 명랑에 대해서는 「三國遺事」 卷5 神呪6의 明朗神印條와 惠通降龍條에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을 필요한 부분만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A. 「金光寺本記」에 의하면 스님은 신라에서 태어나 당나라에 들어가 道를 배워 돌아 올 때에 龍의 간청으로 용궁에 들어가 비법을 전하니 용왕이 황금 천량을 시주했다. 땅밑으로 잠행하여 자기 집의 우물밑으로 솟아 나왔다. 이에 자기 집을 회사하여 절을 삼고 용왕이 시주한 황금으로 탑상을 장식하니 광채가 뛰어나 이에 그 이름도 金光이라 말했다 한다(僧傳에 金羽寺라 한 것은 잘못이다). 스님은 諱를 明朗이라 했고 字를 國育이라 했다. 신라 沙干 재량의 아들인데 어머니는 남간부인이라 했으며, 혹은 법승당이라 하기도 했다. 蘇判 茂林의 자녀로써 김씨이니 즉 자장스님의 누이이다. (재량에게는) 세 자식이 있는데 맏이는 國教大德이요, 둘째는 義安大德이며, 스님은 셋째이다. 그 어머니가 꿈에 청색구슬을 삼키고 임신이 되었다 한다. 선덕여왕 원년(632)에 당에 건너가 정관 9년 을미(635)에 본국으로 돌아왔다.

총장 원년 무진(668)에 당 장수 이적이 대군을 거느리고 신라군과 함께 하여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에, 군사를 남겨 백제에 머물게 하고 장차 신라를 쳐서 멸망시키려 하니, 신라인들이 이 일을 알고 군사를 내어 이를 막았다. 당 고종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 설방에게 명하여 군사를 일으켜 장차 신라를 치려 했다. 문무왕은 이를 듣고 두려워하여 법사를 청해 비법을 써서 빌어 이를 물리치게 했다. 이로 말미암아 신인종의 개조가 되었다(하략).⁶⁾

B. (상략)이보다 먼저 밀본법사의 후에 고승 명랑이 있었다. 용궁에 들어가서 神印·법서에서는 文豆婁라 했는데 여기서는 신인이라 했다.

6) 「三國遺事」 卷5, 神呪6 明朗神印條.

을 얻어 신유림-지금의 천왕사-을 처음으로 세우고 여러번 이웃나라가
쳐들어온 것을 기도로서 물리쳤다(하락).⁷⁾

사료 A에서 명랑의 가문을 살펴보면 부친인 재량은 신라 관등 중 8등
급에 해당하는 사찬이었지만 그의 모계는 성골이었던 것으로 보아 당연
히 신라 최고의 귀족이었음을 알 수 있다.⁸⁾ 또한 그의 입당시기와 귀국
시기에 대한 『삼국유사』의 기록을 믿는다면 그의 외숙이 되는 자장은
그보다 늦은 636년에 입당하여 643년 귀국하였는데 선덕여왕대에 대국
통에 임명되어 僧尼의 규범과 統統을 통괄하면서 강력한 왕권의 지지기
반을 마련해주었다. 또한 그의 형들도 당대의 저명한 승려들이었다.

따라서 진골귀족의 신분이었던 그의 불교사상은 귀족불교의 성격을
지니며 선덕여왕대의 자장의 활동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
다. 즉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국가 鎮護의 명분하에 왕권과 긴밀
하게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사료 A와 B에서 서술 내용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두 기록 모두 명랑
이 용궁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성이 있다. 『灌頂經』의 신인
비법이 주로 해상의 적들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며 또 신인종 자체가 용
신신앙과 관련 있으므로 아마도 두 사료 모두 명랑이 중국에서 『관정
경』을 접하고 신인비법을 전수받아 왔다는 내용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
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금광사는 명랑 자신의 집을 절로 만들어 용왕이 준 황금으로 塔
像을 꾸몄다고 하였다. 이 절의 명칭이 『金光明經』이라는 經名과 같고
『금광명경』에는 佛身이나 佛法을 금색·금광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신인종이 채택한 주경전이 『관정경』과 『금광명경』이었
음을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명랑이 창건한 金光寺 寺名의 金光
은 불상과 탑에서 금빛이 나기 때문에 불인 이름이라 하였는데 이런 造
像 규범이 확립된 것은 『觀佛三昧海經』에서였다.⁹⁾ 게다가 용궁에서

7) 『三國遺事』卷5, 神呪6 惠通降龍條.

8) 文明大, 앞의 논문, 『震檀學報』41, 1976, p.191.

9) 文明大, 앞의 논문, 『震檀學報』41, 1976, p.205.

황금을 받아 塔像을 장식한다는 것은 「관불삼매해경」의 내용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이다. 따라서 사료 A의 기록은 명랑의 행적을 「관불삼매해경」의 내용에 대입하여 설파적으로 윤색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그렇게 본다면 신인종은 「관정경」, 「금광명경」뿐만 아니라 「관불삼매해경」에도 의거해서 개창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¹⁰⁾ 다음으로 신인종의 성립이 바로 종파 성립을 의미하는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종파의 성립시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지만,¹¹⁾ 최근에는 사상사 연구에서 고대에서 중세로 변화하는 기점을 신라의 삼국 통일을 전후한 시기로 설정하여 이 시기를 종파성립기로 보려는 경향이 나타났다.¹²⁾ 즉 종파의 성립은 특정사상이 敎學面, 儀式面, 信仰面에서 체계를 갖추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매체, 즉 사원을 중심으로 조직적·체계적으로 행해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신라통일기 전후에 나타나는 제양상을 살펴보면 교학·의식체계를 단순히 수용하는 단계로부터 그것을 이해하고 평가 재해석하는 단계로의 전환, 또 신앙을 왕실·귀족층만이 전유하는 단계에서 일반민들도 함께 공유하는 단계로의 전환, 또한 사원의 소재지가 왕도 중심에서 지방사회로 확산되어 가는 추세 등을 종합하면 바로 이 시기가 종파성립의 단초를 연 단계라는 것이다.¹³⁾

중국의 경우에도 수·당대에 주의주장을 뜻하는 宗觀念이 성립되었다. 다양한 인도불교는 발달에 따른 여과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일시에 모두 동등한 자격으로 중국에 전래되었다. 여기에서 敎判의 문제가 생겼다. 그런 다양한 요소들 속에서 “무엇이 불교 본래의 사상인가”라는 의문이 ‘宗’이란 말 속에 함축되어 중국불교의 특색이 되었다. 따라서 신

10) 文明大, 위의 논문, 『震檀學報』 41, 1976, p.207.

11) 許興植, 「宗派의 起源에 대한 試論」, 『金哲坡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83.

_____, 「高麗佛敎史研究」, 일조각, 1986.

_____, 「社會와 思想(宗敎)으로 본 韓國史의 時代區分」, 『震檀學報』 71·72, 1991.

高翊晉, 앞의 책, 동국대 출판부, 1989.

文明大, 앞의 논문, 『震檀學報』 41, 1976.

12) 蔡尙植, 「한국 중세불교의 이해방향」, 『考古歷史學志』 9, 1993

_____, 「신라 승관계이해를 위한 시론」, 『韓國文化研究』 6, 1993.

13) 蔡尙植, 앞의 논문, 『韓國文化研究』 6, 1993, pp.42~43.

라통일기를 전후한 시기에 신라 불교계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중국과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으리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신인종의 경우는 어떠한가. A, B 사료에서 보았듯이 명량 신인종의 주경전은 「관정경」과 「금광명경」, 「관불삼매해경」으로 대표된다. 宗의 개념을 자신이 신봉하는 경전 내지 교의에 적용시키는 단계를 종파불교의 성립기로 본다면 신인종은 교학면에서 뚜렷하게 종파로서의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신인종이 의식면에서 뚜렷한 체계를 갖추고 있었는지는 아래의 사료를 살펴보자.

C. (상략)의상은 곧 돌아와서 임금에게 아뢰니 임금은 매우 두려워하여 여러 신하들을 모아 막을 계획을 물었다. 각간 김천손이 아뢰었다. 「요사이 명량법사가 용궁에 들어가서 비법을 배워 왔으니 그를 불러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명량이 아뢰었다. 「낭산 남쪽에 신유림이 있으니, 그곳에 사천왕사를 세우고 도량을 열면 좋겠습니다.」 그때 정주에서 사람이 달려와서 보고했다. 「당나라 군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우리 국경에 다가와서 바다 위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왕은 또 명량을 불러 물었다. 「일이 이미 급박했으니 어찌하면 좋겠소?」 「채백으로써 절을 임시로 만들면 될 것입니다.」 이에 채백으로 절을 짓고 풀로써 5방의 신상을 만들고 유가의 명승 열두분으로써 명량을 우두머리로 삼아 문두루의 비밀법을 지었다. 그때 당 군사와 신라 군사가 아직 접전하기도 전에 바람과 물결이 사납게 일어나서 당나라 배가 모두 물에 침몰되었다. 그 후에 절을 고쳐 짓고 이름을 사천왕사라 하니, 지금까지 壇席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 후 신미년에 다시 조현으로 장수를 삼아 5만명이 침공하므로 또 그 법을 사용하니 전과 같이 가라앉았다.¹⁴⁾

사료 C에서는 채백으로 절을 짓고 壇席을 마련하였으며 五方神像을 만들어 문두루의 비밀법을 지어 당나라 수군을 격퇴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인도에서는 굴타왕조에 접어들어 불교가 브라만의 의례를 대폭 섭취

14) 『三國遺事』 卷2, 文武王法敏條.

하고 힌두교 정신을 포섭하였으며, 다신교적 경향을 현저하게 나타내었다. 불교가 外敎의 雜法을 받아들인 것은, 세속의 雜術邪法을 신봉하고 불법의 학습에 의욕을 나타내지 않는 群生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한다. 이와 함께 供養法, 觀佛法, 結界作壇法, 請雨止雨法 등 밀교의례의 형성도 이 시기의 특색이었다.¹⁵⁾ 7세기 중엽이 되면 다수의 밀교경전이 중국에 유입되었으며 造壇, 結印, 畫像法을 비롯한 밀교의 의례는 거의 완성되었다.¹⁶⁾ 이처럼 밀교는 초기부터 작단법이 존재했으며 차츰 밀교의 의례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명랑의 문두루비법도 밀교의 作壇法을 구사하여 제단을 만들고 밀교의 眞言을 외우는 의식을 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신인종은 의식면에서도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전쟁이 끝난 후에 이러한 교학과 의식체계를 갖추고 행할 수 있는 사천왕사를 중심으로 종파를 성립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파 성립의 과정을 설명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점은 불교대중화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신앙을 매개로 한 불교대중화의 이면에는 일반 민들이 성장함으로써 그들이 요구하는 신앙적 욕구를 지배층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단계와 현실이 개재되어 있는 것이다.¹⁷⁾

신인종은 어떠했을까. 명랑보다 연배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의 경우에는 선덕여왕대 「약사경」을 통한 치병활동으로 왕실과 귀족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다. 635년 귀국한 명랑이 신인종을 개창한 시점은 사천왕사가 창건된 679년(문무왕 19) 이후였으니 그 사이 기간은 아마도 밀본처럼 치병주술을 위주로 한 대중교화에 주력하면서 그 명성이 알려지게 되었을 것이다. 다만 밀본과의 차이점이라면 그가 가진 주술의 성격이 국가 진호의 측면이라는 점을 크게 부각시켰다는 점일 것이다.

신인종의 경우에는 불교대중화문제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당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국가불교의 성격을 부각시키면

15) 松長有慶(허일범 역), 『密敎歷史』, 경서원, pp.52~53.

16) 松長有慶(허일범 역), 위의 책, 경서원, p.58.

17) 蔡尙植, 앞의 논문, 『考古歷史學志』 9, 1993, p.302.

서 개창되었으므로 일반 민들의 신앙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보다는 다분히 정치적 성격을 더 강하게 띠고 있었을 것이다.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사료는 찾아볼 수 없으나 당시의 일반 민들에게 교화를 행했던 승려와의 관계속에서 유추해볼 수는 있다.

불교가 왕실과 귀족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을 때 불교내의 일각에서는 일반 민들에 대한 교화의 필요성을 자각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혜숙, 혜공, 대안, 원효 등이었다. 그들 가운데 특히 혜숙과 혜공의 행적에 대해서 사료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 진평왕이 들고 사신을 보내어 맞아오라 하였다. 혜숙이 어느 여자와 같이 누워 있으므로 사신이 더럽게 여겨 그대로 돌아가다가 칠팔리 쯤에서 혜숙사를 만났다. 어디서 오느냐고 물으니 성안의 보시하는 집에서 7일 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라 한다.

E. 혜숙이 죽으니 마을 사람들이 耳峴 동쪽에 장사지냈다. (중략) 그리고 이런 동쪽에 오니 장사지내는 사람들이 아직 모여 있는 지라. (중략) 지금 안강현 북쪽에 혜숙사라는 절이 있으니 그가 있던 곳이다.

F. 영험이 이미 드러났으므로 마침내 출가하여 중이 되어 이름을 혜공이라 고치고 항상 한적한 절에 있으며 매양 미친 듯이 삼대기를 끓여지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노래하고 춤추므로 부계화상이라 하였다.

G. 만년에는 향사사로 옮겨 살았는데 그때 원효가 모든 경, 소를 짓다가 의심이 나면 혜공에게 가서 물었으며(하략).¹⁸⁾

사료 D에서 혜숙은 진평왕이 사신을 보내어 초청하고자 하였으나 그 예 옹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보시하였던 신도집의 7일재를 지내주었다. 사료 E에서는 이름 없는 마을 사람들과 평소에 가까이 지냈으며 입적한 후에도 마을 사람들이 장례를 치렀다는 내용이다. 사료 F에서 보이는 혜공의 모습은 당시 승려들의 위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임을 짐작할 수 있다. 즉 호화스러운 사찰에 기거하지 않고 한적한 절에 있으면서 저자거리를 돌아다니며, 위엄 있는 태도를 보이는 승려들과는 달리 노래하고 춤추며 일반 민들과 어울리고 있다. 사료 G에서는 향사사라는 한

18) 『三國遺事』 卷4, 義解5 二惠同慶條.

적한 사찰에 있으면서 당시 사상계의 거목인 원효에게 해박한 지식으로 의문점을 교시해 주는 알뜰함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보듯이 이들은 당시의 국가불교적인 분위기에 동조하지 않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일반 민들에게 전교하기를 힘쓰고 있다.

이러한 교화승들과 신인종과의 관계를 알려주는 사료가 있다.

H. 또 신인조사 명랑이 금강사를 새로 창건하고 낙성회를 베풀었을 때 고승들이 다 모였지만 스님(혜공)만 오지 않았으므로 명랑스님이 분향하고 정성껏 기도하였더니 조금 있다가 혜공스님이 왔다. 그 때에 큰 비가 내렸는데 그의 옷이 젖지 않았고 발에는 진흙이 묻지 않았다. 명랑에게 이르되 「은근히 부르기에 왔다」하였다.¹⁹⁾

명랑은 635년 귀국하자 곧 자기 집을 회사해서 금광사를 창건했다. 이 절은 탑상을 용왕에게 시주받은 황금으로 장식하였기 때문에 금광사라 하였을만큼 호화스러운 사찰이었을 것이다. 이 사료에서는 금강사라 했지만 이는 곧 금광사로 생각되며, 그 낙성회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이 때 신라의 모든 고승들이 빠짐없이 모였다고 하였으나 혜공만은 명랑이 특별히 분향 기도하는 정성을 보이자 마지 못해 낙성회에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서 유추해보면 혜공은 왕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명랑에 대하여 호의를 가지지는 않았던 것 같다. 불교가 인종이나 계급을 초월한 종교라 하더라도 당시 왕실·귀족 등 지배 세력의 지배질서를 정당화시키는 경향을 띠고 있던 명랑을 비롯한 입당 구법승들에 대해서 계급적 차이를 느끼는 것은 당연했을 것이다. 신라 종교기 치병활동으로 왕실·귀족뿐만 아니라 일반 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졌던 밀교는 그 자체로는 당시 일반 민들과 유리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종파로서 성립한 신인종은 강력한 전제왕권의 옹호자의 모습이었으므로 교화승들이 느끼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 민들과는 일정한 거리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점은 또한 신인종이 당시 일반 민들에게 유행하던 미륵신앙이나 아미타신앙과 같은 정토신앙과 결부되

19) 주 18) 참조.

어 있지 않았던 데서도 잘 드러난다.

따라서 신인종은 신앙면에서 불교대중화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고 이러한 한계점이 이후 신인종 쇠퇴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본다. 또한 이 점은 신인종이 일반 민에 대한 교화보다는 지배층의 요구에 부응하여 주술을 통한 국가위기극복이라는 문제에 치중하였음을 반증해주는 것이며 결국 국가위기의 상황이 종료되고 지배층의 이해관계에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쇠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신인종의 태생적 한계이기도 하였다.

2. 神印宗의 성격

명랑은 「관정경」에 입각하여 호국적인 밀교의례를 조직하여 최초로 활용한 승려였으며, 그가 행했던 文豆奠(mudra, 神印)비법은 「관정경」 권7 伏魔封印大神呪經에 기록되어 있는 문두루법에 의거하고 있다.

그렇지만 명랑 문두루법회의 상황을 보면 「관정경」의 내용과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사천왕사를 창건하였다는 데서 보듯이 사천왕의 역할을 부각시켰던 점과 당의 수군을 물리칠 때 유가명승 12인과 함께 문두루법을 짓고 있는 점 등은 「관정경」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내용이다. 이것은 명랑의 신인종이 「관정경」뿐만 아니라 다른 경전도 참고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사상적 요소가 첨가되었다는 점은 명랑 신인종의 특징이 되었던 것이다.

사료에 나타난 명랑 신인종의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천왕사의 건립에서 보듯이 사천왕의 역할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점에서 이 종파가 의거하고 있는 소의경전이 잘 나타난다. 사천왕의 호국에 대한 서원과 그들의 위신력에 대해서는 「금광명경」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경전에는 사천왕품이 따로 독립되어 사천왕들의 호국 의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명랑의 신인비법은 그 명칭과 작단법은 「관정경」에 의거하여 사용하였지만 구체적인 내용면에서는 오히려 「금광명경」의 영향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둘째, 유가명승 12인이 법회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신인종의 성격을 찾

아볼 수 있다. 이것은 명량의 신인종이 유가유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초기밀교와 유가유식과는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유가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瑜伽師地論』을 비롯한 유가유식학 제통의 문헌과 『大日經』·『金剛頂經』 등 순밀계통의 경전들이었다. 여기서의 ‘유가명승’은 ‘유가유식에 밝은 승’을 의미한다. 중국 법상종의 玄奘·眞諦 역경 가운데 초기밀교경전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광명경』은 유식사상을 대폭 도입하여 유식경전화하는 현상까지 나타냈다.²⁰⁾ 이러한 『금광명경』과 『관정경』, 『관불삼매해경』을 주경전으로 삼은 명량의 신인종은 교리적으로도 유가유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유식학은 俱舍論(毗曇)을 먼저 학습해야 하는데, 구사론이란 곧 『아함경』의 교리를 연구한 것이다. 『금광명경』과 『관정경』은 모두 『아함경』의 교리인 十業·四諦·十二緣起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경전인 것이다. 유가유식계통 승려들은 명량이 문두루비법을 행할 때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또 이들은 초기밀교경전을 주석하였다. 신라 중대 초기밀교경전을 주석한 대표적 승려로는 신방, 경홍, 원효, 지인, 승장, 문륜, 태현 등으로, 경계를 정해두지 않았던 원효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가유식계통의 승려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법상종이 종파로서 성립하기 전부터 신인종을 매개로 하여 왕실·귀족과 연결되었고, 교학면·의식면·신앙면에서 체계를 갖추어 나가면서 이후 왕경을 중심으로 한 대현계 법상종을 성립시켰던 것이다.

셋째, 호국불교로서의 성격이다. 다음 사료를 살펴보자.

1. 우리 태조(왕건)가 나라를 세울 때 또한 해적이 와서 침범했으므로, 이에 安惠, 朗融의 후에인 廣學, 大緣 등 두 대덕을 청해서 법을 만들어 해적을 물리쳐 진압시켰는데 모두 명량의 제통이었다. 그러므로 법사를 합하고 위로 인도의 고승 용수에 이르기까지를 9조로 삼았으며, 또 태조가 그들을 위해 現聖寺를 세워 한 종파의 근거를 삼았다.²¹⁾

20) 高翊晉, 『韓國古代佛教思想史』, 동국대 출판부, 1989, pp.407~408.

21) 주 6) 참조.

사료 I는 고려 초기 신인종이 고려 태조의 창업을 도와서 종파의 근본도량인 현성사를 창건하였다는 기록이다. 물론 태조 왕건은 여러 종파의 사찰들을 건립하였다. 즉 華嚴宗寺院은 法王寺·興國寺·開泰寺·靈通寺, 法相宗寺院은 彌勒寺와 慈雲寺, 海東宗은 王輪寺, 律宗은 開國寺, 禪宗은 日月寺·舍那寺·龜山寺·普濟寺·廣明寺·安和禪院 등의 사찰이 건립되었다.²²⁾ 그렇지만 특히 이 사료에서 신인종은 신라의 삼국통일기나 고려의 개국시기에 해적의 침입을 막았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국가의 어려운 시기에 국난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호국불교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이다.

넷째, 신인종은 용신신앙과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명랑이나 역시 신인종 승려로 보이는 혜통의 설화 모두 용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명랑은 용왕에게서 문두루법을 배워 왔다고 하며, 혜통은 중국에서부터 독룡을 몰아 결국 신라에서 용을 조복시켰다고 하여 혜통의 일대기에서 독룡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²³⁾ 호국·호법의 용에게서 법을 전수 받고 악한 용은 항복시켰다는 내용에서 신인종이 갖는 용신신앙의 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

Ⅲ. 神印宗과 中代王權과의 관계

삼국을 통일할 무렵 신라에서는 중고기 말에 세력을 키워 김유신의 후원을 받아 왕위에 오른 무열왕이 고구려·백제와의 전쟁과정속에서 왕권강화에 주력하였고, 통일 후 계속해서 그 직계 자손들이 왕위를 계승하여 왕권의 전제화를 진행시켰다. 문무왕대는 공신들인 진골귀족세력들이 왕권과 결탁하여 그 지위를 향상시켰으니 이 당시는 통일전후의 상황인 까닭에 그 논공행상이나 관직 수여 등으로 정치·사회상황이 정

22) 韓基汶, 「高麗太祖의 佛教政策 - 創建 寺院을 중심으로 -」, 『高麗初期佛教史論』, 민족사, 1986, pp.162~165.

23) 주 7) 참조.

비되지 못하였던 시기로 문무왕도 공신들을 무시할 수 없었던 까닭이었다. 그러나 신문왕대가 되자 이전의 정치세력을 제거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을 부각시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즉 원년에 국구 김흠들의 역모를 진압하면서 많은 귀족들을 숙청하여 전제왕권을 확립해 나갔다.²⁴⁾

이러한 전제왕권의 확립기에 사상적 뒷받침이 되었던 사상은 화엄사상이었다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어왔다.²⁵⁾ 그러나 신라 중대 전제왕권이 화엄종과 밀착되어 있었던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²⁶⁾ 이후 유가유식의 강세에 밀려 신라 중대에는 화엄종이 벽지인 낙산, 부석산 등에서 전교활동을 벌였다는 견해도 나왔다.²⁷⁾

그러나 이 시기에 왕실의 전제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기여한 불교 종파는 신인종이었다고 생각된다. 신인종은 통일전쟁시기 가장 어려웠던 唐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면서 전쟁의 불안감 속에 이완된 민심을 수습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던 것이다.

이 시기 왕실의 힘으로 건립한 사찰 가운데 成典寺院인²⁸⁾ 사천왕사와 감은사는 신인종의 대표적인 사찰이었다.²⁹⁾ 특히 사천왕사에 설치되었던

- 24)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神文王條. 김흠들의 난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대략 살펴보면 ①「삼국사기」 신문왕 즉위조에 보이는 “久而無子”에 의한 無子說(이병도), ②父의 난에 의해 궁에서 내쫓긴 것과 연관한 연루설(신종원), ③발생원인 및 이후 단행된 정치개혁과의 상호관계에 주목하여 문무왕의 왕권강화의 결과 소외된 진골귀족들이 일으킨 난(김수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25) 金文經, 「儀式을 통한 佛敎의 大衆化運動」, 『史學志』 4, 1970.
 安啓賢, 「新羅佛敎」, 『韓國史』 3, 국사편찬위원회, 1976.
 李基白, 「新羅 初期佛敎와 貴族勢力」, 『震檀學報』 40, 1975.
 ———, 「新羅時代의 佛敎와 國家」, 『歷史學報』 111, 1986.
- 26) 金相鉉, 「新羅中代 專制王權과 華嚴宗」, 『東方學志』 44, 1984.
 ———, 「新羅 華嚴學僧의 系譜와 그 活動」, 『新羅文化』 4, 1984.
- 27) 金福順, 「新羅 中代 華嚴宗과 王權」, 『韓國史研究』 63, 1988.
- 28) 신라통일기에 나타난 양상 중 주목되는 것은 성전을 설치한 사원들이 건립되었다는 점이다. 성전사원은 기록상 7개가 설치되었는데 그 기능은 대체로 승점기구로서의 통제적 기능과 왕실의 봉사 기능으로 대별되며, 아울러 사원의 경제적인 관리를 수행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 29) 蔡尙植, 「新羅統一期 成典寺院의 구조와 기능」, 『釜山史學』 8, 1984, p.92에서 「감은사의 창건은 龍神이라는 수호신 신앙에 바탕하고 있었으며, 그 입

成典은 『三國史記』 職官志의 배열상, 官部의 명칭상 또 官職의 명칭에서 최고격이 높은 존재였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 이는 사천왕사가 신라 중대 국가적 차원에서 전불교계를 통괄하는 위치에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³⁰⁾ 이와 관련하여 당시의 실권자들인 경덕왕대 시중이었던 김웅이나 뒷날 선덕왕으로 즉위한 김양상이 사천왕사와 감은사 성전의 책임자였던 점은 이 두 사찰의 중요성을 짐작하게 한다.³¹⁾ 또 성전사원 가운데 봉성사는 신문왕대에 건립된 사찰로 신인종 승려로 보이는 혜통이 관련되어 있다.³²⁾ 다음의 기록을 살펴보자.

1. 처음에 신문왕이 등창이 나서 혜통에게 보아 주기를 청하였다. 혜통이 와서 주문을 외우니 당장 나았다. 이에 말하기를 “폐하가 전생에 재상의 몸이 되어 노비를 誤決하여 신중이 종이 되었으므로 신중이怨을 품어 환생할 때마다 앙갚음을 합니다. 지금 이 등창도 신중의 재앙이니 마땅히 신중을 위하여 절을 세우고 명복을 빌어 원한을 풀게 하십시오” 하였다. 왕이 옳게 여겨 절을 세우고 이름을 신중봉성사라 하였다.³³⁾

이 사료에 의하면 밀교승 혜통이 왕의 병을 치유하고 봉성사를 세우도록 건의하고 있다. 사료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봉성사의 건립에는 혜통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것이므로 봉성사의 성격 자체가 밀교적 색채를 짙게 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성전사찰 가운데 세 사찰이 밀교사찰이거나 최소한 밀교와 연관된 사찰이라는 해석이

지적 조건도 군사적인 요충지이므로 건립에 직접 참여한 승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사천왕사나 봉성사의 창건에 참여한 신인종 계통의 승려들이 봉성사 건립에 앞서 감은사 건립에 참여하고 주관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였다.

30) 蔡尙植, 위의 논문, 『釜山史學』 8, 1984, pp.104~105.

31) 「신라성덕대왕신종명」 『조선금석총람』, p.40.

이홍직, 「신라 승관제와 불교정책의 계통」 『한국사논문선집』 Ⅱ, 일조각, 1976, p.216.

32) 蔡尙植, 위의 논문, 『釜山史學』 8, 1984, pp.90~91.

33) 주 7) 참조.

가능하며 그렇다면 신라 중대 초기 밀교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밀교와 관련 있는 사찰로 원원사가 있다. 다음 사료를 살펴 보자.

K. 또 신라 서울 동남쪽 20여리에 遠源寺가 있는데, 세간에 이렇게 전한다. 「안혜 등 4대덕이 金庚信·金義元·金述宗 등과 함께 발원하여 세운 것이며, 4대덕의 유골이 모두 절의 동쪽 봉우리에 묻혔으므로, 이 때문에 사령산 조사암이라 한다. 그렇다면 4대덕은 모두 신라 때의 고승이었다고 하겠다.³⁴⁾

사료 K는 안혜와 낭용 등이 원원사를 창건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 사료에 의하면 원원사 창건이 김유신이 활동하던 시기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김유신의 활동기는 명랑법사가 활동하던 시기이다. 안혜와 낭용은 명랑의 후예라고 하였으니 이들에게 김유신이 후원하였다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 그러나 사료의 내용을 보면 김유신과 원원사가 어떤 관련을 맺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현재 남아 있는 원원사 동·서삼층석탑의 조성이 탑의 양식상 8세기 말경으로 추정되는데 어쩌면 이 무렵에 원원사가 창건되었거나 혹은 소규모로 존재하고 있던 사찰이 크게 중창되었을 것이다. 이때는 혜공왕대 몰락했던 김유신 가계가 원성왕계와 결탁하여³⁵⁾ 신라 중대 무열왕계 왕권을 붕괴시키고 원성왕을 즉위시

34) 주 6) 참조.

35) 『三國遺事』 卷1, 紀異1 味鄒王 竹葉軍條. 혜공왕 6년 김유신의 자손 김용이 반기를 들다 처형당했는데, 이에 김유신의 혼이 미추왕의 혼에게 하소연하였고 혜공왕은 대신 김경신(원성왕)을 보내어 김유신의 능에 사과하고, 김유신을 위하여 공덕보전 30결을 추선사에 내리고 명복을 빌게 했다는 내용이다. 김용의 반란은 중대왕권의 전제화과정에서 점점 배제되어 가던 공신세력이 무열왕계에 대한 반발로서 일으켰던 반란이었으며, 여기에 김경신이 김유신의 능에 사과하러 갔다는 것은 곧 범내물왕계의 김경신과 김유신가계 사이에 일정하게 친분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무열왕계인 김주원과 김경신이 왕위다툼을 벌일 때 김유신가계는 당연히 김경신의 편에 서게 되었던 것이다.

키는 데 일정한 공헌을 했다고 생각되는 시기이다.

그렇다면 김유신 가계와 신인종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김유신과 밀교와의 관련성을 사료를 통해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L. 북한산성이 포위되어 고구려와 말갈이 西東으로 공격하여 위태로울 때 홀연히 큰 별이 적의 진영에 떨어지고, 너성벽력과 비가 오니 적병들이 놀라 포위를 풀었다. 유신이 적이 성을 포위했다는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인력으로 할 수 없고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하고 佛寺를 찾아가 壇을 설치하고 기도하자 천변이 있었던 것이다.

M. 유신이 명을 받들어 懸鼓峯의 岫寺에 이르러 제계하고 곧 靈室을 달아걸고 홀로 앉아 분향하여…….

N. 유신이 달려와서 말하기를 일이 급하니 인력으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 신술이라야 구할 수 있다고 하고 성부산에 단을 만들고 신술을 닦을 때 홀연히 큰 독 만한 光色이 단상에서 나타나더니 별이 북쪽으로 날아갔다.³⁶⁾

O. 또 김유신은 일찍이 한 늙은 거사와 교분이 두터웠는데, 세상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때 공의 친척 수천이 오랫동안 악절에 걸려 있었으므로 공은 거사를 보내어 병을 진찰하게 했다. 마침 수천의 친구 인혜사가 중악에서 찾아왔다고 거사를 보고 모욕해 말했다. (중략) 인혜는 공중으로 거꾸로 올라가는데 높이에 한 길 가량이나 되었으며 한참만에 천천히 거꾸로 내려와 머리가 땅에 박혀 말뚝처럼 우뚝 섰다. 옆에 있던 사람이 밟고 잡아당겨도 움직이지 않았다. 거사는 나가서 가버렸으며 인혜는 거꾸로 박힌 채 밤을 새웠다. 그 이튿날 수천이 사람을 시켜 김공에게 알리니 김공은 거사에게 가서 풀어 주게 했다. 인혜는 다시는 재주를 팔지 않았다.³⁷⁾

사료 L, N에서 불사를 찾아가 단을 설치하였다는 것은 마치 명랑이 단을 세우고 오방신을 모신 신인비법을 연상케 한다. 밀교에 있어서의 작단법을 구사한 듯 보인다. 사료 M은 신령에게 분향하여 기원하는 것

36) 『三國史記』 卷42, 列傳2 金庾信條.

37) 『三國遺事』 卷5, 神呪6 密本摧邪條.

으로 이미 분향은 불교 전래때부터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밀교적 주술과 연관성이 있다.³⁸⁾

사료 O는 김유신과 교분이 두터웠던 한 거사와 인혜라는 승려의 주술시합이야기로, 이름 모를 거사의 승리로 끝난다는 내용이다. 이 이름 모를 거사는 밀본이 활동하던 시기에 역시 밀교적 행법을 수행하던 승려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³⁹⁾ 김유신의 밀교적 성격은 이 승려와의 교류에서 비롯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⁴⁰⁾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김유신은 밀교와 상당한 친연성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국가의 안녕과 왕권 유지에 무엇보다도 투철했던 무장이었던 그로서는 말년에 국가 진호의 성격을 분명히 했던 신인종이 성립되자 여기에 귀의하며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단월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아무튼 이처럼 중대왕실의 지원을 받았던 신인종은 통일공신인 김유신 가계의 전폭적인 지원도 받았다. 이는 앞서 보았던 원원사의 창건에서 잘 나타난다.

그런데 중앙집권을 추진한 무열왕계는 김유신 가문의 세력이 비대해져 왕권 전제화의 걸림돌이 되자 점진적인 제거작업을 벌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유신 가문은 신문왕의 구귀족 세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는데,⁴¹⁾ 성덕왕대 김유신의 아내를 봉하여 夫人으로 삼고 해마다 곡식 1천섬을 주기로 하였다는 기록에서는 김유신 가문을 위무하는 모습도 보이지만⁴²⁾ 김유신의 적손인 윤종의 경우에는 왕실과 소원한 관계였으며⁴³⁾ 무열왕계의 마지막 왕인 혜공왕 6년 그 직계손들이 처형된 사건에서 김유신 가문에 대한 배제작업이 가

38) 물론 초기 분향은 治病의 성격이 강했던 것 같다. 대표적인 사례로 목호자가 공주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분향을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또 「三國遺事」 射琴匣條에 보이는 焚香僧의 존재도 당시 왕실 내에 치병을 위해 거처하던 승려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39) 金在庚, 앞의 논문, 『대구사학』 14, 1978, pp.8~11에서는 이러한 밀교승려들을 삼기산 금곡사의 승려그룹으로 설정하였다.

40) 文明大, 앞의 논문, 『震檀學報』 41, 1976, p.200.

41)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神文王 1年條.

42) 『三國史記』 卷8, 新羅本紀8 聖德王 11年條.

43) 『三國史記』 卷43, 列傳3 金庚信 下.

장 선명하게 드러난다.⁴⁴⁾ 하지만 지속적인 신원운동과 원성왕 옹립에 기여하면서⁴⁵⁾ 어느 정도 세력을 회복하자 도성의 남쪽에 그들의 원찰입과 동시에 호국의 명분을 내세운 원원사를 창건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 신인종의 승려인 안혜와 낭옹이 주석하였으니 이 사찰이 신인종계통임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신인종이 김유신 가문의 몰락과 함께 동반하여 쇠퇴하였던 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우선 신라 효소왕대 혜통이 국사로 임명되었다는 기록 이후로 밀교 승려들의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한 의문을 갖게 한다. 다음 기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P. (상략)이에 화상은 무위삼장의 중심 골자를 전하며 속세로 두루 다니며 사람을 구제하고 만물을 감화시켰다. 겸해 숙명의 밝은 지혜로서 절을 세워 원망을 풀게 해 주니 밀교의 교풍이 그제사 크게 떨쳐졌다. 天磨山の 總持巖과 母岳의 呪錫院 등이 모두 거기에서 갈려 나온 것이다.⁴⁶⁾

이 기록을 보면 국사로 임명되었던 혜통은 대중들속으로 들어가 널리 사람들을 구제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왕실과의 관련보다는 일반 서민층을 대상으로 전교를 행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는 효소왕대 왕권과 유리되기 시작한 신인종의 모습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즉 국가 위기 상황이 끝난 후 일반 민들이 요구하는 신앙적 욕구를 지배층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게 되자 왕실측에서는 미륵신앙, 아미타신앙 등의 정토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법상종, 화엄종에 더욱 매력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결국 왕권과 소원해진 신인종은 다시 일반 민들과 연관을 가지면서 신라 중고기 밀교의 특징이었던 치병주술에 주력하게 되었던 것 같다.

또 하나 신인종의 쇠퇴를 잘 알려주는 사실이 있다. 중대 말기가 되면서 전불교계를 통괄하는 수석 승정기구였던 四天王寺成典을 대신하여

44) 『三國史記』卷9, 新羅本紀9 惠恭王 6年條.

45) 주 35) 참조.

46) 주 7) 참조.

奉德寺成典이 그 위치를 대행했다는 점이다. 즉 성덕왕대 창건된 봉덕사는 신라 중고기에 황룡사에서 실시하던 仁王道場을 실시하였으며, 경덕왕·혜공왕대에 성덕대왕신종을 봉안한다든가, 관직구성을 크게 확대한 점 등을 통해 보면 그 위치가 크게 부각된 사찰이었다. 이는 신라 통일기 초의 집권체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국가불교적인 차원에서 사천왕사가 중시되었으나, 차츰 왕실의 私的인 願堂의 기능을 가진 사원이 부각되는 경향 속에서 봉덕사가 중시된 것이 아닌가 한다.⁴⁷⁾ 종파의 성격이 뚜렷하지 않은 봉덕사가 신인종의 주사원인 사천왕사를 대신하여 중대 말에 불교계를 통괄하는 위치에 자리했다는 것은 곧 신인종의 역할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결국 중대 초기 왕권전제화 과정에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였던 신인종은 얼마 후 유력한 후원세력이었던 김유신 가문의 몰락과 함께 세력을 잃게 되었고, 김유신 가문의 신원운동이 성공하여 어느 정도 세력이 회복되자 원원사를 창건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들의 고유한 성격과 기능을 유지해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원원사가 건립된 위치를 살펴보면 왜구가 신라로 내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쌓은 관문성과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므로 해상으로부터 침입하는 왜적을 물리치기 위해 신인종 계통에서 불사를 하는데는 적합한 장소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관문성의 건립에는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한 의도 뿐만 아니라 행여 경주 아래 지방세력이 반기를 드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도 다분히 내재하였다. 이는 관문성의 길이가 언양에 이르기까지 12km에 달하는 큰 성이었음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문성내에 세워진 원원사는 국가불교의 대표적인 종파였던 신인종 사찰인 만큼 해적의 침입을 맞아 국가를 수호하겠다는 기원과 함께 국내의 지방세력에 대해 전제왕권을 수호하려는 기원도 아울러 행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47) 蔡尙植, 앞의 논문, 『釜山史學』 8, 1984, p.105.

IV. 神印宗 미술의 특징

종파로서의 성격을 갖는 신인종이 성립되면서 신라 불교미술은 통일 이전과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신인종 사찰과 그 미술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것이 갖는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신인종 사찰로 생각해볼 수 있는 사찰은 다음과 같다. 즉 신인종은 주사찰인 사천왕사를 비롯하여 경주 남산의 신인사라든가 칠불암, 소금강산의 굴불사, 문경 대승사 등의 사방불신앙을 담고 있는 여러 사찰들을⁴⁸⁾ 건립하였다.⁴⁹⁾ 또 국토수호와 방위신앙의 관점에서 문무왕을 위해 창건한 감은사의 창건기록을 살펴보면⁵⁰⁾ 신인종의 용신신앙과도 연관되어 있으므로⁵¹⁾ 감은사도 역시 신인종 사찰이 될 가능성이 있다.⁵²⁾

사천왕사의 경우에는 앞서의 『삼국유사』 기록에도 보듯이 신인종의 종파 성립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찰이다. 또한 신라 중대 초기 가장 중요한 성전사원이었다. 그러므로 사천왕사는 신인종의 주사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리라 생각된다.

감은사는 문무왕이 동해왕이 되어 왜구의 침입을 막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간 뒤 신문왕이 즉위하여 그의 부왕을 위하여 세운 사찰이다. 지금 감은사 절터 앞의 대종전은 바로 바다와 통하며 예전에는 수량도 풍부했었다 한다. 감은사는 설화에 의하면 신문왕이 감은사 금당 계단 아래에 동쪽을 향하여 구멍을 뚫어 동해의 용이 된 문무왕이 언제든지 감은사로 들어와 머물 수 있도록 독특한 설계를 지시하였다. 현재 금당지는 높은 기단이 배치되었는데 석재를 일렬로 연결하여 마치 마루처럼 만들어서 그 아래에 넓은 공간을 두었다. 이것이 용이 들어와서 머물 수

48) 文明大, 「新羅四方佛의 起源과 神印寺의 四方佛」, 『韓國史研究』 18, 1977, p.73.

49) 태장계 만다라에서는 사천왕을 동서남북의 아촉불·아미타불·보살불·불공 성취불 등 4불을 本地로 하는 그 垂迹으로 표시하였다(徐潤吉, 『高麗密敎思想史研究』, 불광출판사, 1993, p.75). 따라서 방위신앙인 사방불신앙은 사천왕신앙과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사방사불은 곧 사천왕으로 대체할 수 있다.

50) 『三國遺事』 卷2, 紀異2 萬波息笛條.

51) 蔡尙植, 앞의 논문, 『釜山史學』 8, 1984, pp.91~92.

52) 文明大, 앞의 논문, 『農壇學報』 41, 1976, p.195.

있도록 만든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또한 감은사 가람이 배치된 토축 아래에는 용이 들어와 머물도록 배려한 龍潭址도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원사의 龍王殿은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즉 원원사지 금당지 옆으로 난 길을 따라 가면 근래에 세운 용왕전이 나오며 전각 속에는 우물처럼 石槽가 배치되어 있다. 건물의 밖에는 돌로 된 수로가 길게 연결되어 있다. 이 遺構는 아마 원원사가 창건될 당시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곧 용왕이 들어와서 머물게 하는 수로를 상징한다. 신인종 사찰인 원원사에서 이러한 상징물을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신인종이 용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왜적들을 격퇴하는 데는 용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 문무왕이 해상의 용이 되겠다는 유언을 한 것도⁵³⁾ 실로 신인종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용신신앙과의 관련성 뿐만 아니라 신인종 사찰인 원원사와 감은사와의 현존 유구의 검토를 통해서도 감은사가 신인종 사찰일 가능성은 매우 크다 하겠다. 또 감은사 서삼층석탑에서 나온 사리기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사천왕상이 부착되어 있고, 최근에 동삼층석탑에서도 석탑 수리를 위해 해체하면서 삼층탑신부에서 사천왕상이 부착된 사리가 발견되었다. 사천왕상은 밀교적 성격을 가진 조형물이며 특히 신인종에서는 중시되므로 감은사가 신인종 사찰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신인종 미술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방불의 조성에 있다. 그렇다면 사방불이 조성된 사찰은 모두 신인종의 사찰로 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해를 위해 먼저 사방불이 어느 사상, 어느 종파에 의해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사방불의 이름은 중국의 경우 대개 7세기 전반까지는 「금광명경」이나 「관불삼매해경」의 사방불이 거의 원칙으로 되어 있었다. 이들 경의 사방불은 동에 아촉, 남에 보살, 서에 무량수, 북에 미묘성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사방불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짐작되는 신인사 사방불의 경우에 「관불삼매해경」의 사방불을 대체로 묘사하고 있다.⁵⁴⁾ 따라서 신인종이 의거한 경전의 사방불변상을

53) 「三國遺事」 卷2. 紀異2 文虎王法敏條.

54) 文明大, 앞의 논문, 「韓國史研究」, 18, 1977, p.72에서 “「관불삼매해경」에 보

새겼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신라 사방불의 첫 자료가 신인종에서 조성되었다고 한다면 신라 사방불의 수용은 바로 신인종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인종은 방위를 대단히 중시하였다. 사천왕사에 단을 설치하여 五方神像을 만들었던 것처럼 문두루법은 각 방위의 신에 의거해 적을 항복 받는 그러한 비법이었기 때문이다.⁵⁵⁾ 이후에 사방불은 오방불로 발전하여 잡다한 부처님을 체계화시키는 단계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七佛庵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칠불암의 동쪽 부처는 약사여래로 신인사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칠불암 조성단계에서는 경전에 의거한 사방불을 신라화하여 변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景德王代の 掘佛寺도 왕실의 후원을 받으며 건립된 신인종의 사찰이 아니었을까. 굴불사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Q. 또 경덕왕이 백률사에 행차하여 산 아래 이르렀을 때, 땅 속에서 엄벌하는 소리가 들리었다. 사람을 시켜 파보니 큰 돌이 있는데 사면에 사방불이 새겨져 있었다. 이로 인하여 절을 세우고 그 절 이름을 굴불사라 하였는데, 지금은 잘못 전해져 굴석사라 한다.⁵⁶⁾

경덕왕은 法相宗의 大賢을 초빙하여 초기밀교의 경전인 『금광명경』의 강의를 들었다. 따라서 경덕왕 자신도 밀교의 경전에 어둡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工匠에게 명하여 일종의 밀교만다라인 萬佛山

면 물론 사방불의 모양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대신 경에 사방의 특징에 대해서 몇 번의 언급이 있다. 경과 조각을 서로 연관시킬 수 있는 쪽은 북방과 서방이다. 북방은 탑이 돌고 피수(사자)가 있는 특징적인 것인데 경전의 설명에서는 북방에는 금강탑과 기라 많은 탑들이 있다고 언급되었고, 또한 사자가 분명히 치달린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보면 사자가 날뛰는 것이나 탑은 모두 신인사 사방불의 북쪽에 묘사된 것과 비슷하여 아마도 관불경의 이러한 표현을 變相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다. 서방에 대해서는 7보주가 있는데 한 보주에서 나무가 나서 7보금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으며 천인들이 많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사방불의 서쪽에 나무 두 그루가 있는 것과 연관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여 신인사 사방불이 『관불삼매해경』의 사방불을 표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55) 文明大, 위의 논문, 『韓國史研究』 18, 1977, p.73.

56) 『三國遺事』 卷3, 塔像4 四佛山·掘佛山·萬佛山條.

을 만들어 唐의 대종에게 보내주었던 것이다.⁵⁷⁾

이 사방불의 가장 큰 특징은 西面을 제외한 三面은 모두 얇은 龕 속 에 있는 부조상인데, 유독 서쪽의 삼존불 가운데 좌우보살은 각각 독립 된 원각상이며 중앙본존인 아미타상도 머리는 독립되어 있으며 신체는 거의 독립상에 가까운 데다 다른 상에 비해 훨씬 장대한 작품이다. 이 사방불의 주존이 이 아미타상이라 해도 될 정도이다. 이처럼 아미타불의 사방불에서의 우월은 확실히 서방정토신앙의 절대적인 영향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말하자면 경덕왕대의 아미타신앙의 전면적인 대두를 알려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⁵⁸⁾

백불사와 굴불사가 위치한 소금강산은 전통적인 산악신앙 가운데 북악으로 신성시되던 산이었므로 이곳에 방위개념을 증시하는 신인종 계통에서 사찰을 건립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리고 보면 서라벌 내의 4악 가운데 서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인종 계통의 사찰이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동악인 토함산에는 석굴암이,⁵⁹⁾ 남악인 금오산에는 칠불암 오방불과 신인사 사방불이, 북악인 소금강산에는 굴불사 사방불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서악에 신인종 계통 사찰이 건립되지 않았던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선도산은 산정에 선도산 성모의 사당이 있는 까닭에 이 곳은 특별히 신성시되었던 지역이었다. 따라서 선도산 구룡에는 어느 지역보다도 왕릉으로 추정되는 고분들이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통일기 이전부터 신성시되던 지역이므로 신라의 전통적 신앙이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이며 그 때문에 신인종의 사찰을 건립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둘째, 가람배치에 있어서 신라 중대에는 통일 이전과는 다른 쌍탑식

57) 주 56) 참조.

58) 文明大, 「景德王代의 阿彌陀造像問題」, 『新羅彌陀淨土思想研究』, 민족사, p.182.

59) 文明大, 「石窟庵佛像彫刻의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에서는 석굴의 조성이 「관불삼매해경」의 부모를 위한 내용과 악마를 퇴치하고 국가를 鐵護한다는 내용의 영향을 받아 기록된 것으로 보고 이러한 「관불삼매해경」을 바탕으로 「관정경」·「금광명경」같은 사상을 종합한 신인종 사상에 의하여 석굴암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또한 여기에는 「유마경」이나 「파연경」 또는 「법화경」과 같은 일련의 사상도 융합되었다고 하였다.

가람배치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신인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사천왕사와 감은사는 2탑1금당식의 가람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람배치는 통일기 초에 처음으로 전개된 것이다. 그 가운데 사천왕사는 목탑을, 감은사는 백제식 석탑 양식과 통일 이전 신라의 모전석탑 양식을 가미하여 새로운 신라전형양식의 석탑을 각각 2기씩 조성하였다. 이러한 쌍탑가람배치는 한국에서 이전에 없었던 파격적인 가람배치이다. 통일신라의 쌍탑가람에 대하여 고유섭 선생은 불국사의 쌍탑을 예로 들면서 『법화경』의 견보탑품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추측하였는데⁶⁰⁾ 사실 이 설로는 최초의 쌍탑가람인 사천왕사의 가람배치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사천왕사는 금당 앞쪽에 양 탑이 배치되어 있고 금당 뒤쪽에는 경장으로 보이는 두 개의 건물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것은 본존을 중심으로 한 사방사불이나 제석천 아래에서 사방을 다스리는 사천왕의 배치를 건물로 표현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게 본다면 사천왕사는 사찰 전체가 방위불이나 사천왕의 존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찰이라 할 수 있으며, 사방불신앙이 신인종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셋째, 신인종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사천왕의 역할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신라 중대 사천왕상의 조성은 바로 이 신인종 계통의 사찰에서 주도해나갔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신인종에서 제작되었다고 생각되는 사천왕상은 사천왕사지 출토 채유사천왕상과 감은사 사리기 사천왕상이 있다. 석굴암의 조성이 신인종과 관련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므로,⁶¹⁾ 그렇게 본다면 석굴암의 사천왕상도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시기는 다소 떨어지지 만 원원사지 동·서 삼층석탑의 사천왕상도 역시 신인종에서 제작된 천왕상이다.

우선 사천왕사지 출토 채유사천왕상은 제1천왕상이 보관을 쓰고 제2천왕상이 투구를 쓰고 있다. 모두 얼굴에는 수염이 표현되어 있고, 두마리의 惡鬼를 밟고 앉아 있다. 제1천왕상의 경우는 肩甲에 양쪽 모두

60) 高裕燮, 『韓國塔婆의 研究』, 동화출판공사, 1975, pp.58~59.

61) 文明大, 앞의 논문,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鬼面의 표현이 있다. 膝裙 밑에 裙衣를 입고 脛甲의 표현 없이 샌들을 신고 왼손에는 환두대도를 잡고 있다. 제2천왕상은 슬금 아래 군의 자락을 표현하였고 경갑을 하고 있다. 오른손은 화살을 쥐고 왼손은 활을 잡았다.⁶²⁾

사천왕사지 출토 채유사천왕상은 良志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다.⁶³⁾ 양지는 승려로서 선덕여왕대부터 그 행적이 드러나 문무왕대까지 조형 활동이 활발하였던 名匠이었다. 글과 그림, 각종 기예에 두루 능하여 그 시기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많은 작품을 남겼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 靈廟寺의 丈六三尊像과 天王像, 殿塔의 기와와 天王寺塔 밑의 八部神將과 法林寺의 主佛 三尊·좌우 金剛神 등을 만들고 영묘사와 법림사의 편액도 직접 썼다.⁶⁴⁾ 양지의 활동시기는 명랑이 당에서 귀국하여 활동하던 시기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아마도 양지가 조성한 사천왕상이나 팔부신중상 등에 대한 圖像은 명랑과의 교감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사천왕사가 창건될 때 造像 작업은 양지가 전담했을 것이다.

감은사 사리기 사천왕상은 금동사리기의 감신 사면에 금동판으로 사천왕상을 새겨 붙인 것으로 감은사의 창건 연대를 신문왕 2년(682)으로 본다면 이 사천왕상은 조성시기가 확실한 예로서 사천왕상 양식변천을 이해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持國天王과 多聞天王像이 거의 완전하며 廣目天王과 增長天王像은 무릎 아래가 결실된 상태다. 지국천왕과 다문천왕은 각각 짐승과 악귀를 밟고 서 있고, 胸甲은 모두 明光鎧이며 목수건을 두르고 있다. 슬금 아래 군의의 표현은 생략하였다. 이 사리기 사천왕상은 서역인의 일곱을 하고 있는데 이는 서역지방과의 교역의 산물이라고 생각된다. 네 상의 頭光은 모두 띠로 엮은 모양의 圓形頭光이며 카이젤수염을 표현하고 있다. 증장천왕만 보관을 쓰고 그 외의 상은 복상투형이다. 다문천왕이 든

62) 拙稿, 「新羅下代 四天王浮彫像 研究」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1994, pp.9~10.

63) 文明大, 「良志와 그의 作品論」 『佛敎美術』 1, 동국대학교, 1973.

姜友邦, 「四天王寺址 出土 彩釉四天王浮彫像의 復元의 考察」 『圓融과 調和』, 1990.

64) 「三國遺事」 卷4, 義解5 良志使錫條.

보탑은 마치 부다가야대탑을 연상시키는 모양이며 지국천왕은 창을 들고 있는데 창날부분이 없어져 창의 형식은 알 수 없고, 증장천왕은 화염보주를 쥐었으며 광목천왕은 금강저를 들고 있다.⁶⁵⁾

사천왕사지와 감은사에서 출토된 사천왕상들은 벽들과 금동판이라는 像의 재료에는 차이가 있지만 양식적인 측면에는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이들의 형식과 양식의 유사점을 살펴보면 좌상과 입상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얼굴의 표현이 같고 갑옷의 표현도 다양하긴 하지만 세부 표현방식과 무늬는 기본적으로 같다. 굳이 다른 점을 찾자면 투구의 유무, 腕當의 유무, 持物의 다름, 生靈座의 다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草花文을 여백에 배치한 점, 갑옷 표현의 솜씨, 얼굴 표현의 솜씨 등은 모두 같다.⁶⁶⁾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감은사 사리기의 사천왕상도 양지의 작품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감은사가 신인종 제통의 사찰이라고 본다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되는 셈이다.

대체로 신라 중대 초기에는 조각양식상 몇 가지 경향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삼국의 옛 양식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수적인 색채를 띠는 양식이며, 둘째는 보수적인 조각과 인도 굽타양식, 중국의 성당양식을 받아들여 절충한 절충양식이며, 셋째는 인도와 중국의 외래양식을 철저하게 소화한 새로운 진보적 사실주의양식이다.⁶⁷⁾ 사천왕사지 출토 채유사천왕 전이나 감은사 사리기 사천왕상은 이 가운데 셋째의 경우로 이국적인 풍모와 세련된 조각기법이 돋보이는 작품이며 이러한 경향은 이후 불상의 양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석굴암 사천왕상은 본실 연도 좌우에 배치하였는데 역시 용모는 서역인을 연상시키며 唐 龍門 敬善寺의 천왕상과 같은 갑옷을 표현하였다.⁶⁸⁾ 머리에는 원형투광이 표현되었고 보관을 쓰고 있으며 동·남·서방천왕

65) 拙稿, 앞의 논문,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1994, p.10.

66) 姜友邦, 「新良志論」 「法空과 莊嚴」, 열화당, 2000, p.154.

67) 文明大, 「한국불교미술사」, 한·연, 1997, pp.145~149.

68) 「三國史記」 권27, 백제본기5 무왕 27년조를 보면 당에 백제가 사신을 당에 보내어 明光鎧를 바쳤다고 한다. 이 기록에 의하면 명광갑이 삼국시대말에는 우리 나라에서도 착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는 당과 신라의 갑옷은 공통된 모습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은 모두 환두대도를 들었다. 북방 다문천왕은 오른손에 보탑을 받쳐 들었으며 네 상 모두 한 마리의 악귀를 밟고 서 있다. 이 사천왕상들은 상체에는 갑옷을 걸치고 하체는 그대로 둔 전투와 의식의 중간형태의 갑옷을 입고 있다. 이 점은 감은사탑 사리기 사천왕상의 경우와 확연히 다른 형식이다.⁶⁹⁾

원원사지 동·서삼층석탑 사천왕상은 원각에 가까운 고부조로 조각되었으며 두광도 표현하였으며 악귀좌 위에 서 있다. 머리모양은 북상투형이며 얼굴의 표현은 더 이상 서역인의 모습이 아니다. 동·서탑의 지국천왕은 모두 환두대도를 쥐고 있으며, 광목천왕은 금강저를, 그리고 다문천왕은 보탑을 들고 있다.⁷⁰⁾

이 두 상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외래양식을 수용하는 단계에서 신라의 조각양식으로 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석굴암 사천왕상의 경우에는 갑옷이나 용모에서는 서역인이나 당의 천왕상과 유사하지만 무기는 철저히 삼국시대 이래의 환두대도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토착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원원사 동·서삼층석탑의 사천왕상의 경우에도 역시 환두대도를 지니고 있으며 용모도 신라인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또한 원원사 동·서삼층석탑 사천왕상은 사천왕이 석탑 면석에 새겨진 최초의 예로서 이후 화엄종과 선종계통 사찰에서 조성된 사천왕상 圖像의 모범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신인종은 새로운 불교미술양식의 등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당시의 예술계를 주도한 종파였던 것이다. 이러한 신인종 미술은 이후 신라 하대의 각종 조각상의 소재와 형식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V. 맺음 말

이상으로 신라 중대 신인종의 성립과 그 미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69) 拙稿, 앞의 논문,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1994, pp.10~11.

70) 拙稿, 앞의 논문,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1994, pp.12~13.

본문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일본의 초기밀교를 계승하면서 신라 중대 종파로 성립된 것은 명랑의 신인종이었다. 명랑은 중국에 건너가 신인비법을 전수받고 돌아오는데, 그의 신인비법은 『관정경』의 바탕 위에 『금광명경』과 『관불삼매해경』의 사상이 강하게 가미된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즉 신인비법은 『관정경』에 나타나지만 사천왕의 국가 진호의 역할과 유가명승의 참여, 애국불교로서의 뚜렷한 특징, 용신신앙과의 관련성 등은 신인종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신인종은 교학적 측면에서 밀교 경전 가운데에도 『관정경』·『금광명경』·『관불삼매해경』을 주경전으로 하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의식적인 측면에서도 壇을 설치하여 문두루비법을 행하였으며, 사천왕사를 건립하여 이를 구현하면서 종파의 성립을 보았다. 다만 신앙을 매개로 한 불교대중화의 측면은 왕권과 결합한 귀족불교로서의 속성상 일반 민들의 광범한 지지를 얻지 못했던 것 같다. 이는 당시 일반 민들과 관련 있던 교화승 혜공의 태도에서도 잘 나타난다.

신인종은 통일기 무열왕계의 왕권강화와 전제화과정에 사상적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 통일전쟁의 혼란기에 민심을 한 곳으로 모아 당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왕권 강화에 크게 기여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 왕실의 힘으로 건립한 사찰 가운데 성전사원이었던 사천왕사와 감은사는 신인종의 대표적 사찰이었다. 특히 사천왕사는 신라 중대 국가적 차원에서 전불교계를 통괄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찰이었다. 그리고 성전사원 가운데 봉성사는 역시 신인종 승려로 보이는 혜통과 관련이 있으므로 밀교적 성향을 띤 사찰로 생각된다. 따라서 성전사원 가운데 3곳이 밀교 계통의 사찰로 당시 밀교의 위상을 짐작하게 한다. 그 외에 굴불사, 신인사, 칠불암, 대승사 등 사방불이 새겨진 사찰들이 신인종의 영향 아래 조성되었다. 이 시기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성된 것은 중대 왕실의 지원을 얻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신인종은 통일기 유력한 귀족가문인 김유신 가계의 지원도 받을 것이다. 이 점은 원원사 창건에서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왕실의 배제와 후원하던 김유신 가문의 몰락 등의 요인으로

결국 신라 중대 어느 시점부터 신인종은 그 힘을 잃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혜통이 효소왕 이후 왕실과 유리되어 일반 민들속으로 전교를 행하게 되었다는 기록이나 성전사원 가운데 최고 사찰이었던 사천왕사의 역할이 봉덕사로 옮겨간 점 등에서 짐작해볼 수 있다.

종파로서의 성격을 갖는 신인종이 성립되면서 신라 불교미술은 통일 이전과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신인종 미술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방불의 구성에 있다. 신라 사방불의 첫 자료인 경주 남산의 탑곡 신인사의 사방불이 신인종에서 조성되었으므로 신라 사방불의 수용은 바로 신인종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가람배치에 있어서 신라 중대에는 통일 이전과는 다른 쌍탑식 가람배치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신인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사천왕사와 감은사는 2탑1금당식의 가람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람배치는 통일기 초에 처음으로 전개된 것이다.

셋째, 신인종의 성격 가운데 사천왕의 역할을 중시했다는 점을 주목해 보면 신라 중대 사천왕상의 조성 또한 이 신인종 계통의 사찰에서 주도해나갔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인종은 새로운 불교미술양식의 등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당시의 예술계를 주도한 종파였던 것이다. 이러한 신인종 미술은 이후 신라 하대의 각종 조각상의 소재와 형식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Abstract】

The formation and fine arts of the Sinin Sect
in the Middle Period of Silla Dynasty

Jo, One-Young

The Sinin Sect in the middle period of Silla Dynasty, was originated by Myeongrang, a Buddhist priest. It had some characteristics, which included the ideas of some scrolls of the Sutras, that is 'Gwanjeong', 'Geumgwangmyeong', and 'Gwanbulsammaehae'. Firstly it has emphasized that the four Devas defended the nation. Secondly The 'Yousik-hak' priests took part in the ritual of the Sinin Sect. Thirdly this sect had powerful connections in the Royal compared with other sects. And lastly it had the worship of holiyng the dragon.

The Sect had the main Sutra, performed the ritual with the altar, and built the Four Devas Temple as a main temple. It was supported by the Royal for these activities, but it didn't get support from the popular because of its connections with the Royal.

The Sect was the ideology of reinforcing of the regal power which was continuously executed by Muyeol and his successors in the times of United Silla. In this period, the Four Devas Temple and the Gameun Temple were typical of ones which were built by supporting of the Royal. Both of them belonged to the Sect. Besides, all the temples which prepared the all-directions Buddha in this period, were built by the Sect. But the Sect has faded away gradually from the time of Hyoso in the middle of Silla because it could not get support from the Royal. The formation of the Sinin Sect made much contribution to development of the Buddhist arts in the Silla.